

시장 개방 본격화...농산물 수급관리 '핫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주요 농정이슈 12' 선정

논·밭농업 직불제 확대·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 조기 도입 계약재배 확대·출하예약시스템 보강, 수급 조절 강화 제시

올해부터 쌀 관세화는 물론 이미 발효됐거나 발효를 앞둔 여러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감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가의 대응에 따라서는 품목 간 율리현상으로 수급의 불확실성과 농가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농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을 6차산업으로 활성화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정책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의 이런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을 감안한 '2015년 주요 농정이슈' 12개를 선정해 지난 19일 발표했다.

첫번째로 농가 경영위기관리의 강화다. 올해부터 대외개방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국내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가의 경영위기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대책으로는 농업회생을 위한 논농업·밭농업 직불제 확대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개선,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의 조기 도입을 위한 제

도적 기반 구축 등이 제시됐다.

올해 농산물 수급관리대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13년 연속적인 태풍 피해로 농산물 가격급등 현상과 2014년 기상호조에 따른 '풍년기근' 현상이 번갈아 나타나는 등 올해도 수급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조직과 실수요처 간 계약재배 확대와 출하예약시스템 강화로 수급의 사전·사후적 조절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시 유통명령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같은 정부의 시장보완적 수급조절기능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 방안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엔저현상으로 농산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FTA체결과 한류 붐 확산을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수출 잠재품목 발굴→국내 생산→유통→물류→마케팅'까지 수출 과정 전반의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통일농업도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제시됐다. 지난해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교역형 복합농촌단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경험사업 개발과

2015 주요 농정이슈

- 농가 경영위기관리의 강화
- 농산물 수급관리대책
- 농산물 수출활성화
- 통일농업(교역형 복합농촌단지)
- 농업의 미래성장동력 확충
- 밭농업 경쟁력 강화
-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재구축
- 바른 식생활, 안정적 소비 기반 확충
- 지역단위 농촌정책 기반 마련 역량 제고
- 사회적 경제로 주민서비스 수요대응
-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 국제농업 개발협력과 농업의 글로벌화

남북 간 농산물 교역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통일 대비 농업정책과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농업의 미래성장동력 확충 ▲밭농업 경쟁력 강화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재구축 ▲바른 식생활, 안정적 소비 기반 확충 ▲지역단위 농촌정책 기반 마련 및 역량 제고 ▲사회적 경제로 주민서비스 수요 대응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국제농업 개발협력과 농업의 글로벌화 등이 올해 관심을 끌 주요 이슈로 꼽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김재수 aT 사장의

푸른농촌 이야기

'빛가람 로컬푸드 운동' 펼쳐자

올해부터 대외개방의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우리 농촌이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국내 거시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국민의 불안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촌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농정전문가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와 한식의 세계화 등 우리농업의 살아갈 길을 제시한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푸른농촌을 만들기 위한 해법을 담은 칼럼을 월 1회 연재한다.

최근 로컬푸드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열기를 불러오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고 지역에서 직접 구매하여 소비하는 '로컬푸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장거리 이동이 필요치 않고 운송시간이 짧기 때문에 농산물의 신선도가 올라간다. 신선도가 올라가므로 안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다. 재배방식이나 보관방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믿고 먹을 수 있다.

더 큰 장점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지역단위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대량 소품종 생산농가 중심에서 소량 다품종을 생산하는 농가로 판로가 확대된다. 소농과 여성농, 가족농,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판로가 구축되어 소득이 보장된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로 운송하면 대형 마트로 운송하는 것보다 연료도 절약하게 된다. 운송비, 물류비 절감으로 소비자는 싼 가격에, 생산농가는 제값 받고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다.

로컬푸드 운동은 이미 선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고 있다. 웰빙열풍이 어느새 로컬푸드 열풍으로 변해가고 있다.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이 대표적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활동'이라는 지산지소 운동은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다. 당초 지역 농산물 판매를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에는 학교급식, 도농교류 확대, 관광 산업 활성화 등으로 확대된다.

지역 기반의 식생활 문화 정착과 올바른 식습관 확립이라는 국민 인식제고에도 성과가 있다. 이탈리아의 '슬로푸드(Slow Food) 운동'이나 미국의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도 크게 보면 로컬푸드 운동의 하나이다. 햄버거나 프라이드치킨 같은 패스트푸드에 반대하는 '슬로푸드 운동'은 웰빙열풍을 타고 국제적 식문화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은 거주지 반경 100마일(약 160km) 내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지는 캠페인이다. 북미 지역 사람들

이 먹는 식재료가 평균 약 2400km이나 떨어진 곳에서 수송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시작되어 캐나다의 물론 뉴욕 등 미국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미국 언론과 식품정보 웹사이트는 올해 인기를 끌 소비 트렌드로 아시안 음식, 말차, 홉프리 비어, 발효음식, 지역생산 곡물, 못생긴 과일과 야채, 식료품 온라인쇼핑, 영양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선정했다. 소규모의 현지 농장에 의해 길러진 곡물, 로컬푸드가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이 눈길을 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연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나주 본사에서 지역 농축협과 함께 '상생협력 직거래장터'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축산물 판매 행사에는 aT 임직원뿐만 아니라 인근 이전기관 및 지역주민 등도 찾아 성황을 이루었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 농가들도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역 농업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고, 품질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역 농업과 식품, 수출 분야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나 홀로 이주한 직원들도 많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 먹거리나 생활품을 구매할 기반시설 부족이 해결이 시급하다. 빛가람 이전 공공기관들이 함께하는 직거래장터를 정착시킨다면 지역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T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지역단위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로컬푸드는 농업분야에 직접 도움이 되지만 국민들의 개선,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로컬푸드를 통한 농민과 도시민의 화합, 세대간 소통, 치유의 효과도 있다.

광주전남에서 로컬푸드 운동을 성공시켜 국민 모두가 화합하는 '화합농업, 치유농업' 시대를 열어가자. 지역농가와 공공기관들이 힘을 모아 '빛가람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지원장 신동하)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17일까지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전남지원은 특별사법경찰 17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30명을 투입한다. 관련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이력 및 양곡표시제 단속도 동시에 벌인다.

원산지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제조·유통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 농산물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축산물 이력에는 소비자가 자주 찾는 식육판매점·정육식당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백화점·마트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정육·갈비세트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 DNA동일성 검사를 통해 표시의 진위여부를 가린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농협, 돈 버는 농촌 만들기 '친환경 아카데미'



친환경농업아카데미 현장 실습이 진행된 전남대 농업실습장에서 참여 학생들이 전문가로부터 친환경 농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FTA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워져가는 농업 여건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돈 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역 농협이 앞장서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광주농협(조합장 한진섭)은 지난해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와 함께 친환경농업아카데미를 개설해 졸업생 67명을 배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친환경 농업 관련 두 개 과정을 추가해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농협은 이와 함께 올해 총사업비 13억을 투입하여 900명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을 신축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대산프리모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